

사드 재협상 논란 부른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정부 불써 끄기... 해석 제각각 한국측 방위비 증가 전략인듯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재협상' 발언으로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선 이번 사드 논란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동맹과의 합의사항도 뒤엎을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가 확인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청와대는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뉴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자료/국정통계정보시스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 진행자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존 합의는 지키겠지만 재협상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한미 안보수장의 통화 이후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하자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1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기존 합의는 지키겠지만 재협상할 것'이라는 발언에서 '기존 합의는 지킨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불식하기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실제 사드 비용 재협상을 요구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 트럼프의 돌출발언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재협상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드와 관련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반드시 사드가 아닌 전반적인 방위비 분담 문제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사드 비용에 대한 것인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국과의 부담 공유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비용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상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 재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리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성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매우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태극권의 굴욕 격투기와 대결 20초 만에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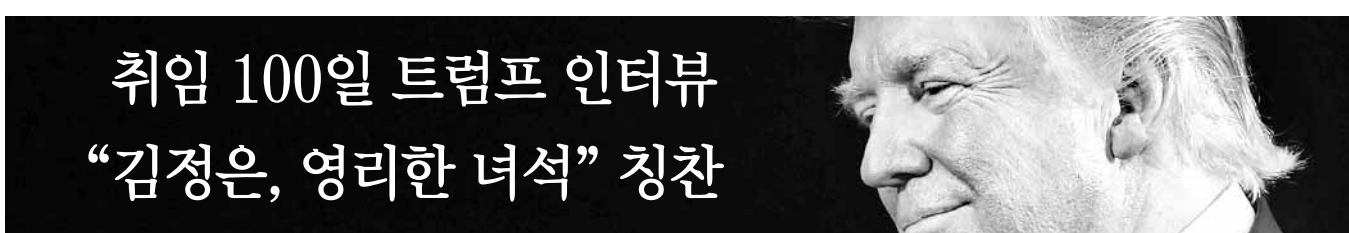
중국 남부 쓰촨(四川)성의 청두(成都)에서 중국 전래의 태극권과 격투기의 대결이 중국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1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쓰촨성 청두의 한 체육관에서 격투기 강사인 쉬샤오둥(徐曉冬·39) 씨와 태극권 강사인 웨이웨이(魏雷·41) 씨가 시합을 벌였다.

이 대련에서 웨이 씨는 채 20초도 걸리지 않아 쉬 씨에 난타당해 링위에 쓰러졌고, 이들의 대련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중국 전통무술이 현대의 격투기를 당할 수 없게 된 것이냐며 탄식했다.

네티즌들은 액션배우인 리샤오롱(이소룡)이나 찰스판(전지단)의 화려한 기술을 기대했지만 웨이 씨는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두 사람의 대결은 쉬 씨가 전통 태극권이 사기라며 웨이 씨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설전을 벌였고 네티즌들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끝장을 봐라"고 충동해 대결이 성사됐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 트럼프 인터뷰 "김정은, 영리한 녀석" 칭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꽤 영리한 녀석"이라며 '칭찬'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삼촌이든 누구든 많은 사람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을 때 26세 또는 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해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을 향해 공감능력을 발휘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우선,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을 설득해 핵무기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하려는 계산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김정은은 미치광이가 아니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스트롱맨'에게 보이는 호감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후세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우 나쁜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가 잘한 게 뭐지? 테러리스트를 죽인 일이다. 그건 아주 잘했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수나라 명장 장손성

장손성(張孫晟, 552-609)은 한반성 낙양 출신으로 자는 계성이고 선비족 출신이다. 수 문제와 양제 시절 돌궐족을 담당해 북방 외교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18세때 북주에 출사해 사위 상사가 되었는데 실력자 양견에게 중용되었다. 6세기 중반 이후 돌궐은 유연을 대신해 북방 최대의 세력이 되었다. 579년 북주의 선제는 양견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왕 우문태의 딸 천금공주를 돌궐의 사발라 칸에게 시집보냈다. 그는 사절단 일원으로 돌궐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친교를 맺었다. 또한 조왕과 부족간 연합관계 등도 소상히 파악했다. 사발라 칸은 그의 무예와 풍채가 뛰어난

스럽게 만들면 돌궐의 힘이 약화될 것이었다. 동과 서 양쪽에서 사발라 칸이 견제 받게 되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 틈을 노려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그의 계책을 채택하고 거기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일차적으로 수나라는 말두와 사발라 칸이 간사키는 모략을 꾸렸다. 말두가 수에 파견한 사신을 사발라 칸이 보낸 사신보다 상석에 앉히는 등 우대해 사발라 칸의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 다음으로 처라후를 설득해 수나라에 귀순토록 하였다. 또한 처라후의 아들 염간으로 하여금 "북방의 철륙 등이 반란을 꾀해 남하하려는 돌궐의 배후를 찌르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하였다. 후미에 위협을 느낀 사발라 칸은 북두에 남하 계획을 늦출 수 밖

북방 외교 성과... 돌궐 평정 주역

것을 높이 사 자주 같이 사냥에 나섰다. 한번은 수리 두 마리가 엉켜 싸우고 있었다. 사발라 칸은 "공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싶은데 한번에 모두 맞출 수 있겠지요"라며 활 솜씨 보기를 희기했다. 그는 화살 한발로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 일전쌍조(一箭雙鵰), 화살 하나로 수리 두 마리를 맞춘다는 뜻의 고사자 여기서 유래했다. 그는 사발라 칸의 동생 처라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채 귀국했다. 북주의 대승상 양견은 그를 봉거도위로 발탁했다.

581년 문제 양견이 수나라를 창건했다. 나이런 정제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은 문제는 대내적으로는 정권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방의 돌궐과 강남의 진나라를 잘 아울러야 했다. 북주 황족 출신의 천금공주는 사발라 칸에게 수나라 공격을 간청했다. 사발라 칸은 40만 군사를 동원해 하북성 산해관을 공격하는 등 수의 북방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돌궐 대척이 국정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그가 문제에게 건의한 대책은 함약리강(含鞏離強)이었다. 약하면 함치고 강하면 분리하는 계획이었다. 사발라 칸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삼촌 말두 칸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을 써 정벌에 성공했다. 수양제는 "그가 한번 성을 내면 그 위엄이 나라 밖까지 뻗었다"며 그의 무용을 높이 평가했다. 장손성 덕에 수·당 조지간 연합이 있었다. 이들을 서로 대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임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